



광주FC 홈 개막전 열띤 응원전 광주FC 홈팬들이 5일 광주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2라운드 홈경기를 관람하며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KIA 김도영, 공·수·주 맹활약... 기대감 '쑥쑥'

삼성 연습경기서 2안타 3득점  
스프링캠프 3경기 타율 0.417  
KIA, 불펜난조 7-11 역전패



‘제2의 이종범’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20·사진)이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맹타를 휘두르며 기분 좋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안정된 수비 실력과 빠른 발에 공격력까지 지난해 루키시즌 때보다 레벨 업되면서 올시즌 공·수·주에서 고른 활약을 기대된다.

김도영은 5일 일본 오키나와현 킨타운 베이스볼스타디움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에서 3타수 2안타 3출루 1도루 3득점의 맹활약을 펼쳤다.

이날 1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1

회초 첫 타석에서 중전안타를 치고 출루한 뒤 고종욱 타석때 2루 도루에 성공했고 1사 만루에서 김석환의 짧은 중견수 희생플라이 때 빠른 발로 홈을 밟았다. 1-0으로 앞선 3회말 두번째 타석에서도 선두타자로 나서 삼성 양창섭의 2구째 직구를 받아쳐 좌전안타로 출루한 뒤 최형우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2득점째를 기록했다.

2-3으로 역전된 5회말 세 번째 타석에선 투수 땅볼로 물러났지만 3-3 동점인 7회말 네 번째 타석 때 불넷으로 출루해 이우성의 스리런 홈런으로 3득점째를 기록했다.

김도영은 앞서 지난 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연습경기에서 1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에 그쳤지만 지난 1일 삼성과 연습경기에서는 1번 3루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 1도루를 기록했다.

1일 삼성전 7회초 1-1로 맞선 1사 2·3루 찬스에서 3유간 빠지는 2타점 적시타를 날려 팀의 역전승을 이끄는 해결사 역할도 했다.

연습경기 3경기서 12타수 5안타(타율 0.417)를 기록한 김도영은 수비에서도 넓은 수비 범위와 호수비로 안정감을 보였다.

김도영은 지난 1일 삼성전서 3루수로 나서 실책 1개를, 3일 롯데전에선 유격수로 출전해 실책 1개를 기록했지만 5일 삼성전에선 잇따라 호수비로 마운드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1회초 2사 후 삼성 김태훈의 3유간 빠지는 안타성 타구를 몸을 날려 잡아냈고 3회초 무사 1루에선 이해승의 3유간을 꿰뚫는 안타성 타구를 잡아 1루주자를 2루에서 아웃시키는 호수비를 펼쳤다.

지난해 103경기 53안타 3홈런 13도루

타율 0.237 OPS 0.674로 아쉬운 데뷔 시즌을 마친 김도영은 올시즌 2년 차를 준비하는 연습경기에서 연일 맹활약을 펼치면서 김중국 감독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고 있다.

김도영의 활약에도 KIA는 이날 불펜난조로 삼성에 7-11 역전패를 당하면서 연습경기 첫 패(2승)를 기록했다.

이날 선발로 나선 아도니스 메디나는 3이닝 2피안타 1볼넷 무실점을 기록했다.

김기훈은 2이닝 2피안타 2사사구 3실점으로 부진했다. 송후섭과 김유신, 이준영은 1이닝씩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9회초 마운드에 오른 전상현이 0이닝 4피안타 2볼넷 6실점, 유승철이 1이닝 1피안타 2볼넷 2실점으로 부진했다.

타선에서는 6회부터 우익수로 나선 이우성이 3점 홈런포를 쏘아올렸으나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최동환 기자



## 광주도시공사 女핸드볼, 무패 행진 마감

삼척시청에 18-23 패배  
‘11승 2무 1패’ 리그 1위

리그 단독 선두를 달리던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의 무패 행진이 멈춰섰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삼척시청과의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18-23으로 졌다.

이날 경기 전까지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던 1위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패배로 무패 행진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승점 24(11승 2무 1패)에 머물렀고, 2위 삼척시청(11승 1무 2패)에 승점 1점 차로 쫓기게 됐다.

광주도시공사 에이스 강경민은 이날 개인 통산 300어시스트를 달성했지만 6득

점에 묶였다. 김지현(4골)과 김지혜(2골), 송혜수(2골) 등 주축 선수들도 삼척시청 골키퍼 박미라(방어율 48.6%)를 뚫지 못한 게 패배로 이어졌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 초반 골키퍼 박조은의 선방과 빠른 역습을 앞세워 4-1로 앞서 나갔다.

하지만 전반 10분 이후 상대 골키퍼 박미라의 선방에 잇따라 막히며 전세가 역전됐고, 10-13 3점 차 뒤진 채 전반을 마쳤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들어 공세를 가하며 14-14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중요한 상황에서 상대 골키퍼 박미라에게 번번히 막힌 데다 실책까지 겹치며 16-22로 밀리면서 승기를 내줬고, 결국 시즌 첫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최동환 기자

## WBC 대표팀 日입성... 대회 준비 돌입

6~7일 오릭스·한신과 연습경기  
9일 도쿄돔서 호주와 1R 첫 경기

14년 만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결전의 땅’ 일본에 입성했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2023 WBC 한국 대표팀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일본 오사카에 도착했다.

이강철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 8명과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토미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까지 합류한 선수 30명은 국가의 명예를 위해 힘을 뭉친다.

야구대표팀의 이번 대회 목표는 4강 진출이다. 2006년 초대 대회에서 4강에 올랐던 한국은 2009년 2회 대회 때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3년에 이어

### WBC B조 한국 경기일정

9일(목) 낮 12시	vs 호주
10일(금) 오후 7시	vs 일본
12일(일) 낮 12시	vs 체코
13일(월) 오후 7시	vs 중국

2017년까지 연거푸 1라운드 탈락의 아픔을 삼켰다.

야구대표팀은 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1라운드를 넘어 14년 만의 4강 진출로 한국 야구의 명예를 되찾겠다 각오다.

이강철 감독은 지난 3일 출사표를 통해 “국가대표의 유니폼이 갖는 엄청난 사명 의식은 저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 이런 일치 감으로 그간의 염려를 넘어서서 최고의 팀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다짐한

다. 최선을 다하겠다. 희망과 감동을 보여드리겠다. 그라운드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전사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호주, 일본, 체코, 중국과 함께 B조에 속해있다. 1라운드에서 조 2위 안에 들어야 8강에 오른다. 8강까지 승리하면 4강과 결승이 펼쳐지는 미국 마이애미로 전세기를 타고 이동한다.

이날 일본 오사카에 도착한 대표팀은 막바지 점검에 나선다. 5일 오릭스 버펄로스 2군 구장에서 훈련을 가진 뒤 6일과 7일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각각 오릭스 버펄로스, 한신 타이거스와 연습경기로 최종 모의고사를 치른다.

8일엔 경기가 열리는 도쿄돔에서 마지막 공식 연습을 소화한 뒤 9일 호주와 1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이후 일본(10일), 체코(12일), 중국(13일)을 연달아 만나 8강행을 다룬다.

최동환 기자·뉴시스